

2019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0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유지혜 선임연구원(ester80@kdb.co.kr)

이유나 선임연구원(ynrhee@kdb.co.kr)

I. 2019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II. 2020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2019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95.9조원으로 전년동기 72.6조원대비 23.3조원 증가하였다.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수요 증가 및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기조로 전년 동기대비 1.6조원 증가한 51.1조원을 기록하였다. 직접금융규모는 주식 발행이 소폭 축소되었지만 회사채의 순발행 확대로 전년 동기대비 21.7조원이 늘어난 44.8조원 순증하였다.

2020년 기업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에 따른 수출둔화 및 투자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2.0% 예상)과 비슷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및 규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기조가 유지 되고,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자산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외부자금수요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승 경계감으로 보수적인 기업대출 운용이 전망된다.

2020년 간접금융시장은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대출규모 증가세 유지되며 新 예대율 적용,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어 공급증가가 이어 지겠으나,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도 투자수요 위축 지속, 내부자금 및 직접금융시장 활용 등으로 전년수준 유지할 전망이다.

직접금융시장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우호적 발행 여건, 공공기관 투자확대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지속할 전망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2019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1. 기업금융규모¹⁾(자금조달규모) 추이

□ '19년에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자금사정은 전년대비 소폭 악화

- '19.1~11월중 직접금융시장 조달 증가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기간 중 증감액)는 95.9조원으로 전년 동기 72.6조원 대비 23.3조원 증가
 - 간접금융규모는 51.1조원으로 1.6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기업 대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증가한데 기인
 - 직접금융규모는 44.8조원으로 전년 동기(23.1조원) 대비 21.7조원 증가, 이는 회사채 순발행 규모(+25.3조원)가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

〈표 1〉

기업금융규모 추이

(단위 : %, %p, 조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11월(a)	연간	1~11월(b)	(b)-(a)
GDP 성장률 ¹⁾	3.3	2.8	2.8	3.1	2.7	2.7	2.0	△0.7
자금사정BSI ²⁾	85	86	84	86	84	84	82	△2
제조업	87	85	84	86	82	82	82	-
대기업	92	91	92	93	91	90	92	1
중소기업	82	78	74	74	72	72	72	-
비제조업	83	86	85	86	85	85	81	△4
기업금융 ³⁾	58.1	56.5	17.4	52.3	72.6	65.6	95.9	23.3
간접금융	52.0	48.3	19.3	38.0	49.5	42.7	51.1	1.6
직접금융	6.1	8.2	△1.9	14.3	23.1	22.9	44.8	21.7

주 : 1) '17.1~11월 GDP 성장률은 '17년 기준, '18.1~11월 GDP 성장률은 '18년 전망치 기준

2) 자금사정BSI는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부정 응답을 0~200 사이 값으로 지수화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응답 업체수가 긍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한 것으로 기간중 월평균 기준

3) (간접금융)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직접금융)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기업금융)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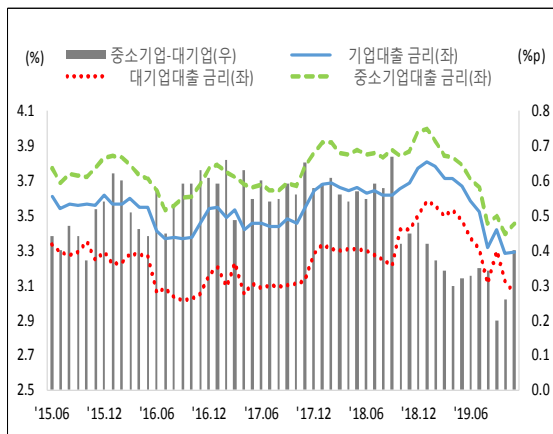
1) 본고에서 기업금융규모는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를 의미하며,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회사채 순발행액(ABS, 특수채 포함) 및 주식 발행액(기업공개, 유상증자)을 합산하여 산출

- '19.1~11월중 기업의 체감 자금사정(BSI)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악화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 부문에서 자금사정 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제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소폭 개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조달여건) 대출 및 회사채 시장 모두 전년 대비 조달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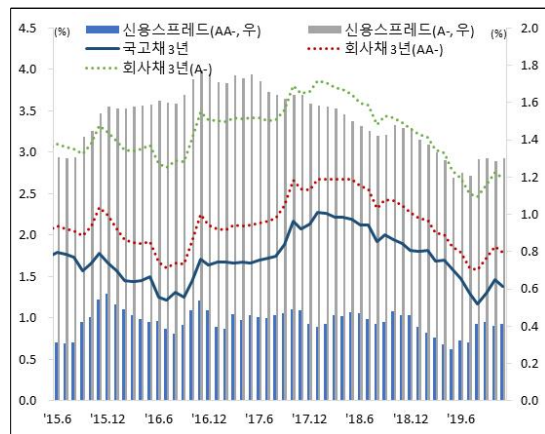
- (대출시장) 대출금리는 '19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차입여건 개선
 -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금리(1~11월 월평균 기준)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8년말 3.77%에서 '19.11월 3.29%로 48bp 하락
 - 대기업은 '18년말 3.50%에서 '19.11월 3.05%로, 중소기업은 '18년말 3.98%에서 '19.11월 3.45%로 각각 45bp, 53bp 하락

〈그림 1〉 대출시장 차입여건



주 :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회사채시장 조달여건



주 : 회사채는 3년물 기준
자료 : 인포맥스

- (회사채시장)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내외 경기부진 우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 등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발행여건 형성
 - 시장금리(국고채 3년)은 '19.8월 중순까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 하락했으나, 이후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전환

-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19년 상반기까지 시장금리 하락과 더불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시장금리가 회사채금리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확대 전환
-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확보를 위한 발행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대 규모의 순발행²⁾ 기록

2. 주요 특징

□ (간접금융시장)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은 감소세로 전환

- (기업대출) '19.11월말 기업대출잔액³⁾은 875.2조원으로 '18.11월말 대비 5.3% 증가
 - 기업대출 증감액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순증하며 '19.1~11월까지 51.1조원 기록
- (대기업대출) '19.11월말 대기업대출잔액은 154.5조원으로 '18.11월말 대비 1.6% 감소
 - 대기업대출 증감액은 '18년 1~11월중 7.4조원 증가하였으나, '19년에는 1~11월중 0.1조원 감소
 - 연간 기준 대출잔액은 '15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⁴⁾ '18년에는 반등하였으나, '19년에는 다시 순감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회사채 금리가 대출시장보다 먼저 하락세를 반영하였고,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채권발행이 용이한 대기업의 경우 대출보다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
- (중소기업대출) '19.11월말 잔액은 720.6조원으로 '18.11월말 대비 6.9% 증가
 - 정책적 지원 및 가계대출 정체에 따른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로 잔액규모 증가세
 - 증감률은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으로, '19.1~11월중 증감액은 51.2조원으로 전년 동기 증감액(42.1조원) 대비 소폭 증가

2) 순수회사채 순발행규모(조원) : 21.3('10년) → 26.2('12년) → △1.4('14년) → △2.3('16년) → 18.7('18년) → 35.5('19.1~11월)

3) 기업대출잔액 증감률(전년동월 대비)
: 7.1%('15년말) → 2.9%('16년말) → 5.1%('17년말) → 5.5%('18년말) → 5.3%('19.11월말)

4) 대기업대출 연말잔액 증감액(조원) : △4.5('15), △11.2('16), △3.6('17), +5.0('18)

〈표 2〉 은행대출잔액 및 증감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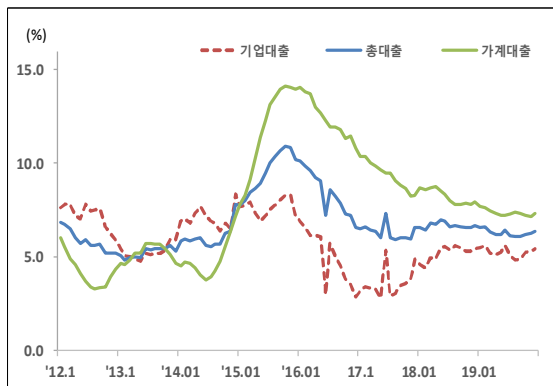
(단위 : 조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11월(a)	연간	1~11월(b)	증감(률)
대출잔액	기업대출	675.8	724.1	743.4	781.4	830.9	824.1	875.2	5.3%
	대기업	168.9	164.4	153.2	149.6	157.0	154.6	154.5	△1.6%
	중소기업	506.9	559.6	590.2	631.8	673.9	669.4	720.6	6.9%
	가계대출 ³⁾	560.9	639.1	708.2	766.8	822.2	827.6	881.1	7.2%
	총대출	1,236.7	1,363.2	1,451.4	1,548.2	1,653.1	1,651.7	1,756.3	6.2%
증감액	기업대출	52.0	48.3	19.3	38.0	49.5	42.7	51.1	1.6
	대기업	18.5	△4.5	△11.2	△3.6	7.4	5.0	△0.1	△7.5
	중소기업	33.5	52.8	30.5	41.6	42.1	37.6	51.2	9.1
	가계대출 ³⁾	37.3	78.2	68.9	58.8	55.4	60.8	53.5	△1.9
	총대출	75.3	126.5	88.2	96.8	104.9	103.5	104.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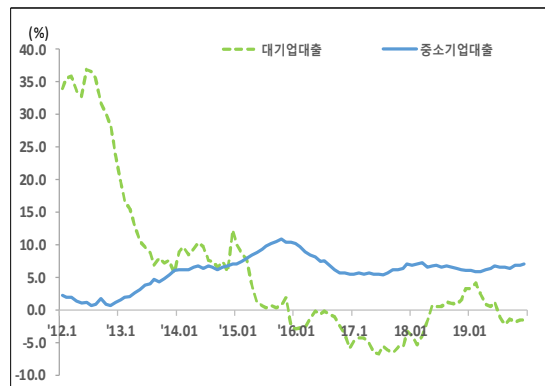
- 주 : 1) 증감액은 잔액의 기간중 증감, 대출잔액은 기간말잔 기준
 2) 증감의 경우 대출잔액은 '19.11월말 대출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b/a-1), 증감액은 '19.1~11월중 증감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폭(b-a)
 3)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은행대출잔액 월별 증감률 추이



〈그림 4〉 기업대출잔액 월별 증감률 추이



- 주 : 1) 증감률은 월별잔액의 전년동월 대비 기준
 2) 총대출·가계대출 증감률은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실적으로 집계 가능한 '11.8월부터임

자료 : 한국은행

□ (직접금융시장) 주식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순발행 확대로 직접금융 규모 확대

○ (시장 규모) '19.1~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규모(순증액)는 전년동기(23.1조원) 대비 21.7조원 증가한 44.8조원

○ (회사채 순발행) '19.1~11월 중 회사채⁵⁾ 순발행규모는 40.2조원(발행 135.6조원, 상환 95.4조원)으로 전년동기(14.9조원 순발행) 대비 25.3조원 증가

- 순수회사채 순발행규모는 '18년 19.7조원에서 '19년 35.5조원으로 큰 폭(15.8조원) 확대

· ABS는 '18년(1.4조원) 대비 1.9조원 증가한 3.3조원 순발행

· 특수채는 1.4조원 순발행되어 '18년(6.2조원 순상환) 대비 순발행 전환

- 상대적으로 저등급인 A등급 이하 순수회사채가 큰 폭으로 확대⁶⁾

〈표 3〉 채권 발행, 상환 및 순발행 현황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발행	'17.1~11월	61.8	20.3	21.9	104.0
	'18.1~11월	76.4	22.3	23.1	121.8
	'19.1~11월	87.4	20.9	27.3	135.6
상환	'17.1~11월	51.1	19.7	27.9	98.7
	'18.1~11월	56.7	20.9	29.3	106.9
	'19.1~11월	51.9	17.6	25.9	95.4
순발행	'17.1~11월	10.7	0.6	△6.0	5.3
	'18.1~11월	19.7	1.4	△6.2	14.9
	'19.1~11월	35.5	3.3	1.4	40.2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

5)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로 구분

6) '18.1~11월 대비 '19.1~11월 순수회사채 순발행규모 증감 : AAA등급 +0.9조원, AA등급 +1.7조원, A등급 +8.3조원, BBB등급 이하 +4.8조원

- (주식 발행) '19.1~11월중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4.6조원으로 전년 동기(8.2조원)대비 △3.6조원 감소
 - (기업공개) 중대형 코스닥기업 기업공개⁷⁾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소폭 증가(+13.2%)
 - (유상증자) 일부 대기업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삼성중공업 1.4조원, 현대중공업 1.3조원 등) 대비 발행규모 큰 폭 감소(△62.2%)

Ⅱ. 2020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기업금융시장여건 분석

(1) 경제·금융환경

- (국내외경제) '20년 세계경제는 '19년에 이어 각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경제는 정부의 재정 확대와 기저효과에 의한 설비투자·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전망
- IMF의 '20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각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는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선진국)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 여지는 제한적일 전망
 - (신흥국) 중국의 성장 둔화세는 지속되나,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전년도에 부진을 탈피하여 이를 완충할 것으로 기대

7) 에코프로비엠 1,728억원, 지노믹트리 1,080억원 등

8) 두산중공업 4,718억원, 두산건설 3,154억원 등

〈표 4〉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국 가	2018	2019(E)	2020(F)
세계	3.6	2.9	3.3
선진국	2.3	1.7	1.6
미국	2.9	2.3	2.0
유로지역	1.9	1.2	1.3
일본	0.8	1.0	0.7
신흥국	4.5	3.7	4.4
중국	6.6	6.1	6.0
인도	6.8	4.8	5.8
러시아	2.3	1.1	1.9
브라질	1.1	1.2	2.2
아세안5	5.2	4.7	4.8

주 :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지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1)

- '20년 국내경제는 정부의 재정 확대와 기저효과에 의한 설비투자·수출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전망
 - '20년 정부의 고용 및 복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투자 부진의 영향이 '19년 대비 줄어들며 소폭 회복 전망
 - 건설투자는 SOC 투자 확대 등에 따른 토목건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수출은 주요국 경기부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세 진정, 전년도 큰 폭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전망
- (대외 리스크 요인)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자 제조대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과 신흥국의 외채 리스크 등에 유의할 필요
 - (중국발 디플레이션) 중국의 수요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와 생산자물가 하락 등은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유발하여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 중국의 수입액은 '19.1~11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Delta 4.5\%$ 로 '17년, '18년 연간 증가율 15.9%, 15.8%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
-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도 '19년 하반기에 하락세로 전환, 7월 $\Delta 0.3\%$ 를 기록한 이후 '19.1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 지속

- (신흥국 외채 리스크) 신흥국의 외채 만기 도래가 '20~'21년 집중된 가운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상환능력 저하
 - 신흥국의 외채 규모는 '09년 4.7조달러에서 '19.1Q 8.5조달러로 두배가량 증가했고 '21년말까지 만기 도래 채권 비중은 48%에 달함
 - 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ICR)*이 2배를 하회하는 비중은 '18년 기준 20% 상회
 - * 기업의 금융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로, 동 수치가 높을수록 이자지급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며 3배 이하일 경우 단기지급능력에 적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

(2) 정책·규제환경

- (통화정책) 부동산 가격상승 등 금융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지속,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유력

- 불확실한 대외여건과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완전타결에 대한 불확실성 잔존 등으로 최종합의 도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국내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 등의 금융불안 요인, '19년 두 차례 금리인하에 따른 통화정책 여력 축소 등은 금리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금융정책)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등의 정책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기업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 DSR 관리지표 제2금융권 확대 시행* 등 주택 관련 대출규제 강화 기조 확대
 - * '18.10월말 1금융권 DSR 관리지표 시행, '19.6월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시행('21년말까지 평균 DSR 목표 : 카드(60%), 보험(70%), 캐피탈(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 '20년 예정된 은행권 新예대출 규제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정책**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 예상
 - 대기업대출의 경우 직접금융 및 내부 보유자금 활용 등으로 큰 폭의 변동은 없을 전망
 - * 예대출(예금/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 산정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 기업대출은 15% 하향하여 적용('20년 시행 예정)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19.8월), 2020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21조원 편성 등

□ (자본규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온 바젤Ⅲ 자본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가 '19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가계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강화

- 완충자본, D-SIB* 규제 등의 전면시행 이후 안정적 자본 관리가 주요 경영 목표로 대두
 - D-SIB로 선정된 국내은행의 '20년 최소 총자본비율 기준은 11.5% (8.0%+자본보전 2.5%+D-SIB 1.0%)이며, D-SIB 포함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
 - '19년 반기 기준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은 15.34%로 우량한 편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가 '19년말까지로 추가 자본확충 필요
 - * D-SIB는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융위에서 '16년부터 선정하여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기조 확대로 소매금융 중심의 시중은행의 경우 추가 자본 부담 존재
 - 예대출 산정방식 개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

* LTV 6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70%)로 상향

** 과도한 가계대출 팽창에 대하여는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표 5〉 바젤Ⅲ 규제 국내 시행 일정

(단위 : %)

세부항목		비고	규제비율
자본 규제	최저 자본규제	보통주자본	4.5 이상
		기본자본	6.0 이상
		총자본	8.0 이상
		단순기본자본비율	3.0 이상
	자본보전 완충자본	모든은행에 2.5 추가	2.5
	D-SIB 추가자본	선정은행에 1.0 추가	1.0
	경기대응 완충자본	감독당국 재량 (‘16.3, 0% 결정)	-
	총자본 비율	D-SIB	11.5
		이외 은행	10.5
유동성	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일반은행	100
		특수은행	100
	NSFR (순안정자금조달비율)		100

주 :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는 하나, 신한, 제주, KB, 우리, 농협(은행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3) 자금수요자 측면

□ (설비투자 수요) 기업의 설비투자수요는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KDB산업은행의 설비투자 조사⁹⁾에 따르면, 기업의 '20년 설비투자 계획은 169.0조원으로 '19년(165.3조원 예상) 대비 2.2% 수준 소폭 증가 전망¹⁰⁾

9) 산업은행('19.12), “설비투자계획조사”

10)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0.1('16) → 4.9('17) → △11.6('18) → △1.4('19e)→ 2.2('20e)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28.7조원, 중견기업 24.2조원, 중소기업 16.1조원으로 '19년 대비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중견기업(△3.2%)과 중소기업(△5.8%)의 설비투자 감소폭은 축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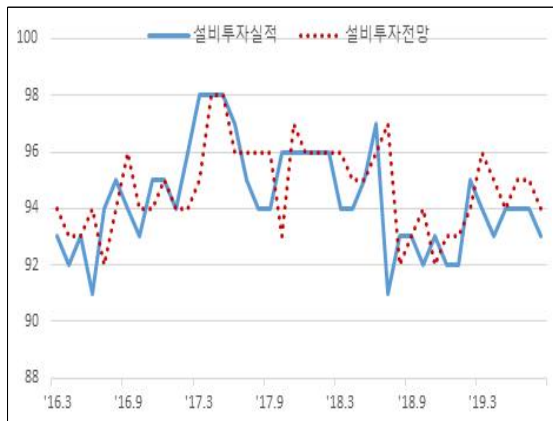
○ (설비투자 BSI) 설비투자 BSI¹¹⁾(실적치)는 '19년 초에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재차 하락하면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

- 설비투자 BSI(전망치) 역시 '19년 들어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

○ (설비투자지수) 설비투자지수도 '19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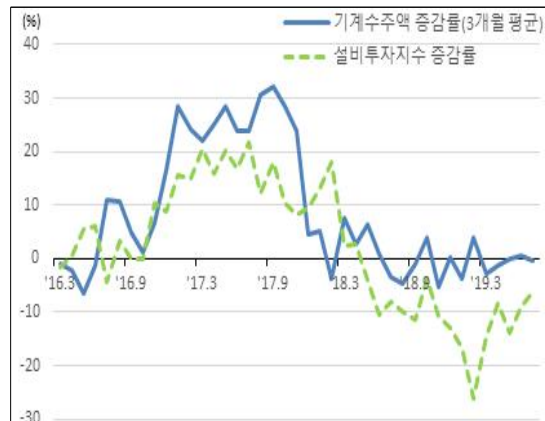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 설비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3개월 평균)은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

〈그림 5〉 설비투자 BSI 추이



주 :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 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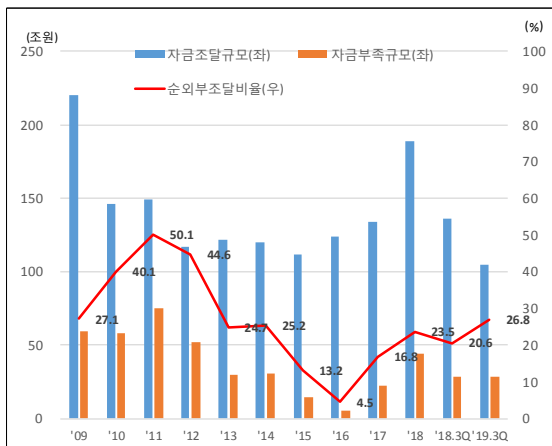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11) 설비투자 BSI = '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대출수요) 기업의 대출수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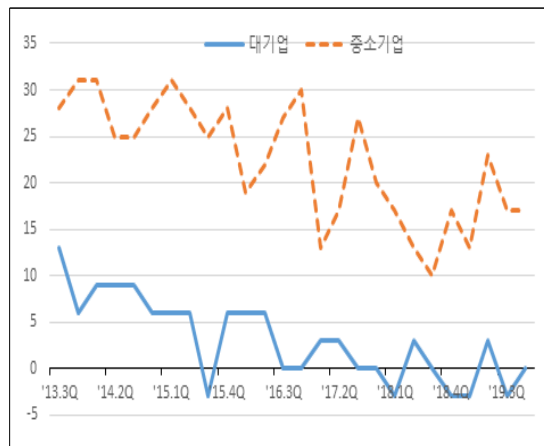
- (외부자금수요) 외부자금수요의 대응치인 기업의 자금부족규모는 '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19년 3분기까지 자금부족규모 확대
 - 실물투자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의 순외부조달비율¹²⁾은 '16년 4.5%에서 '19년 3분기 26.8%로 크게 증가
- (대출수요지수) 국내은행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¹³⁾ 대기업 대출수요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은 대출수요 증가가 지속될 전망
 - 대기업 대출수요는 설비투자 부진과 내부유보금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경기둔화에 따른 운영자금 수요 증가 및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로 증가세 유지할 전망

〈그림 7〉 순외부조달비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8〉 국내은행의 대출수요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12) 순외부조달비율 = 자금부족규모(외부조달금액-금융자산운용)/외부조달금액

13)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10 참고

(4) 자금공급자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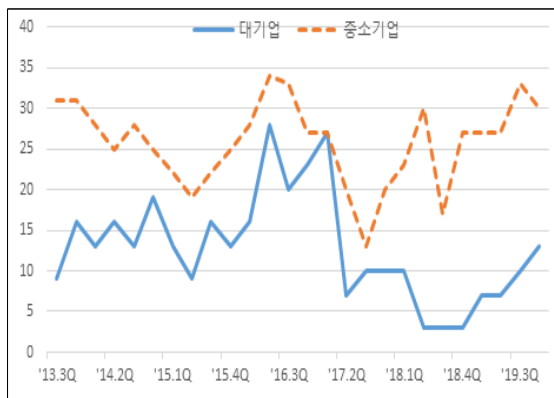
□ (신용위험) 국내은행의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내은행의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상승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하락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여전히 상회
 - 특히 경기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 상승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

-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9년 들어 안정세를 유지
 - 금리 하락 및 이에 따른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 단,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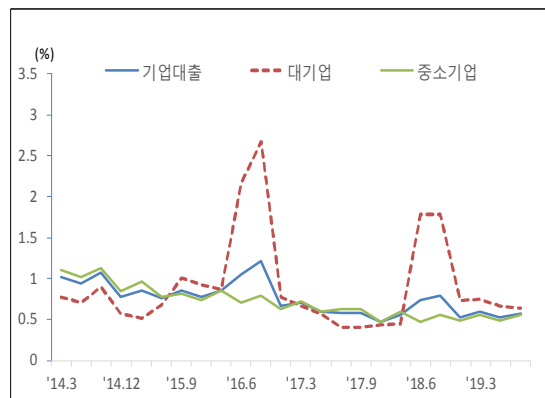
* 연도별 한계기업 비중(외감법인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의 비중)
: 14.7%('15) → 14.2%('16) → 13.7%('17) → 14.2%('18)

〈그림 9〉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0〉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대출태도¹⁴⁾) 기업 앞 대출태도는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화 기조 유지

- '18년 중 강화 기조였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다소 완화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완화 기조가 지속
 - 은행권의 신예대출 규제 등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표 6〉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16년				'17년				'18년				'19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e)
종합	-14	-19	-18	-26	-19	-11	-18	-8	-17	-1	-5	-18	9	11	16	2
대기업	-16	-19	-20	-17	-10	-7	-3	3	-7	-3	-3	0	0	0	10	-3
중소기업	-6	-19	-17	-30	-17	-10	-3	3	-3	7	7	-3	17	23	27	7
가계주택	-19	-25	-27	-27	-23	-10	-40	-27	-37	-20	-23	-47	-3	-7	3	-3
가계일반	-9	-6	-7	-10	-10	-7	-7	-17	-10	-3	-3	-33	-3	0	7	-3

주 : 종합은 차주별 대출금액으로 가중평균

자료 : 한국은행

14)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완화'(대출 증가)라고 응답한 은행의 개수가 '강화'(대출 감소)라고 응답한 은행의 개수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음(-)으로 나타나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

2.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간접금융시장 전망

- (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기업대출 증가폭은 정체되어 전체적으로 '20년 기업대출규모(증감액 기준)는 '19년 대비 감소 예상
- (대기업대출) '20년말 대기업 대출규모는 '19년말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태도는 강화기조가 완화되며 현 수준을 유지하겠으며,
 -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지속, 내부자금 및 직접금융시장 활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대출) 자금수요, 대출태도 등을 감안시 '20년말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전년대비 증가세는 유지하나 증가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으로 공급증가가 이어지겠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 강화가 예상
 - 또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도 심화될 전망

(2) 직접금융시장 전망

- (채권발행) 저금리 환경에 따른 우호적 발행 여건, 공공기관 투자확대 계획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년 중 만기도래 규모는 99.3조원¹⁵⁾으로 예상되며, 순수회사채와 특수채 발행 확대로 '19년에 이어 순발행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순수회사채 발행규모는 우호적인 발행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경기회복 지연, 기업실적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 대비 축소된 수준의 순발행 예상

15) 순수회사채 56.3조원, ABS 17.9조원, 특수채 25.1조원

- ABS 발행규모는 단말기 할부금 매출채권 등 유동화 가능자산 규모 축소 등에 따라 만기도래 금액을 차환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특수채는 국가 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공공기관 투자확대 계획 등에 힘입은 발행규모 증가로 순발행 전환 전망

□ (주식발행) '20년 주식발행 규모는 대내외 불확실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호전 가능성과 상장이 연기된 기업공개에의 재개 가능성 등으로 '19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20년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으로 하방압력이 있겠으나, 반도체 부문의 업황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19년 대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19년 상장이 연기¹⁶⁾된 현대오일뱅크, 홈플러스리츠, 카카오게임즈 등의 상장이 재추진되는 경우, 발행규모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16) '20년 주요 IPO기업 예상 공모액

- (유가증권시장) 현대오일뱅크 약 2조원, 홈플러스리츠 약 2조원
- (코스닥시장) 카카오게임즈 약 0.2조원, 카카오페이지 미정

< 붙임 >

연도별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추이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a)			ABS(b)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2년	75.9	49.7	26.2	19.4	16.3	3.1
'13년	66.1	53.8	12.3	21.4	14.7	6.7
'14년	57.9	59.3	△1.4	21.0	20.2	0.8
'15년	58.3	56.0	2.3	24.4	23.0	1.4
'16년	50.4	52.7	△2.3	22.2	21.0	1.2
'17년	64.0	54.4	9.6	22.8	22.6	0.2
'18년	79.3	60.6	18.7	25.4	23.1	2.3
'19.1~11월	87.4	51.9	35.5	20.9	17.6	3.3

	특수채(c)			계(a+b+c)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2년	43.6	26.2	17.4	138.9	92.2	46.7
'13년	37.2	22.5	14.7	124.7	91.0	33.7
'14년	28.6	27.8	0.8	107.5	107.3	0.2
'15년	23.6	26.5	△2.9	106.3	105.5	0.8
'16년	18.0	28.8	△10.8	90.6	102.5	△11.9
'17년	22.8	28.7	△5.9	109.6	105.7	3.9
'18년	24.1	31.1	△7.0	128.8	114.8	14.0
'19.1~11월	27.3	25.9	1.3	135.6	95.4	40.2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